

대규모 개발사업에 사라지는 농·초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여의도 면적 4.2배 만큼 잡식
김경미 “전용절차 면죄부” 지적
농업통계 고도화 방안 주문도



현길호 위원장 김경미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 농지·초지가 잡식되고 있어 전용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 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22개소)으로 인해 그동안 사라진 농지와 초지 규모는

1231만8721㎡로, 전체 개발사업부지 3666만8800㎡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4.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해 농지와 초지가 심각하게 잡식됐지만 정작 그 전용절차는 개발면죄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지 전용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라 농지 전용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전용 면죄부를 주고 있

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지 전용의 경우 형식적이거나 전용심사의견서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초지 전용의 경우 별도의 전용심사의견서 등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지구 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부지 내 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전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 제도’가 ‘선거운 공약’으로 추진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으며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형 가격안정관리 제도’가 시행될 정도면 해당

농가는 이미 파산할 상태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농업정책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통계의 고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 위원장은 “감귤통계의 경우 생산예측량과 유통처리 결과가 100% 일치하는 반면 월동채소 재배면적의 경우 도의 발표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생산예측과 출하량에 오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데이터 차이가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시장 직선제, 행정시 차원 의지 없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강민숙, 제주도 질타
안동우 “임명직 한계 못 느껴”



이경용 의원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시 차원의 의지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14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안동우 제주시장이 과거 제주도의원 3선과 정무부지사를 거쳤던 경력을 들어 “현행 행정체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안 시장은 “임명직이라도 도 분청과 협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여러 시·군을 경험했던 공무원 63.2%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찬성했고, 일반 도민들도 70%가 직선제에 동의하

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시장은 “나름 동의하지만, 직선제도 한계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넣어 건의했지만 정부가 ‘수용 관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용’으로 바뀐 행정시 차원의 의지가 있는냐”고 질의했다. 안 시장은 “행정시 차원의 별도의 노력보다는 제주도의 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직선제로의 의견 동참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경용 의원은 “답변 과정을 보면서 임기제 시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직선제 시장이었다면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6조 규모 ‘제주형 뉴딜’ 벌써부터 용두사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정책질의서 우려
“문화관광예산 또 삭감 안돼”



문경운 의원 김항국 의원

6조원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과 ‘용두사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경운 의

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책질의회에서 ‘제주형 뉴딜’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인

‘그린뉴딜’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CFI 2030’ 정책은 전기차 보급 등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2025년까지 투입계획인 지방비 2조2700억원 재원 마련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문 의원은 “제주형 뉴딜 예산을 만들기 위해 또 문화관광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대체적으로 발

표는 해놓고 용두사미적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도 발표는 거창하게 해놓고 목표와 현실이 괴리가 많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며 향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예산 확보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는 고민이다. 현재까지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가용하겠지만 지방재는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도시우회도로 추진, 갈등 해결은 외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 서귀포시 상대 추궁
김태엽 “찬성 구간부터 시행”



양영식 위원장 고은실 의원

서귀포시가 도시우회도로의 건설을 위해 갈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서귀포형 뉴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제388회 임시회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엽 시장은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아 ‘도시우회도로 추진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는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지만 어차피 종래에는 4.2km 전 구간을 다 할 것 아니냐. 갈등을 적극 해결하지 않고 피해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

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태엽 시장은 “도시우회도로 계획 구간 중 주민들이 찬성하는 구간을 먼저 시행하려는 것이 서귀포시의 입장”이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로 다이어트’가 보편적 추세로 부상한지 오래다”며 “서귀포시 또한 도시우회도로를 고집할 것만 아니냐 오히려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로 나아 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권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클러스터 용지 방치... 투기 아니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혁신도시 목적대로”
고윤권 “다른 용도 매각 안돼”



김희현 의원

제주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외)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14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혁신도시

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대지조성에 대해 준공했고, 2016년 성공적인 혁신도시 내 토지에 대해 성공적인 분양(분양률 100%)을 이뤄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5년 LH 입주 및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6년 부영아파트 준공, 2018년 7월 남의 공공기관까지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 및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클러스터용지 등은 거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이뤄진 상태로 사업 신청이 거의 없어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클러스터 용지가 사실상 방치된 채 투기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클러스터 용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운기자 lty456@ihalla.com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 행사안내

- 목적**
제주어 알기맞기기와 정확한 쓰기를 홍보하고 가족단위 경연을 통하여 세대간 전승 분위기 조성
- 행사명**
제주어 축제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
- 일시**
2020년 11월 8일(일요일) 10:00 ~ 12:00
- 장소**
제주아트센터(제2주차장)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사)제주어보전회
- 왕중왕 뽑기 방법(팀별 자가 차량 탑승 경연)**
1) 초·중·고생 1명 포함 2대 이상 3인이 한팀으로 구성 경연
2) 문제 연속 출제 답안지 회수 채점 방식 순위 결정
3) 시상금: 장원금제 1팀 400,000원, 최우수상 1팀 300,000원, 우수상 3팀 각 150,000원, 장려상 5팀 각 100,000원, 격려상 10팀 각 50,000원
※ 3대 참가팀 특별 상품 제공 및 팀 구성이 가족 범위를 벗어나 결격사유 발생시 사전·사후 수상 제외
- 신청기간**
2020. 10. 15. 부터 선착순 25팀
1) 참가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참가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 www.jejuero.com
※ 이메일: jejuero2008@naver.com (문의 064-723-2495)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확인 요망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김정민

황우렁

황우렁시사만화로 읽는 제주4·3 순회 전시회 개최

- 일시**
2020년 10월 19일(월)~10월 30일(금)
- 장소**
카페 머체왓 2층 전망대 (남원읍 한남리 1622)

제주 4·3이 72주년을 맞아 4·3이 제주만이 간직한 아픔이 아니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외침과 대명제에 따라 황우렁 시사만화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4·3을 그 동안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기 위해서 펼치는 기획 전시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지만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힘과 용기, 극복의 용원을 보내드립니다.

주관·주최: 황우렁만화천국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회취소공고

대회명
제27회 신제주축구회장이 직장축구대회

- 일 자**: 2020년 10월 17 ~ 18일 (2일간)
- 장 소**: 사라봉축구장의 보조구장
- 주최·주관**: 신제주축구회
- 후 원**: 제주시축구협회

제27회 신제주축구회장이 직장축구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대회를 취소하오니 직장축구 동호인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보다 나은 대회 준비를 통해서 직장축구동호인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제주축구회장이 일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